

金匱要略·黃疸病脈證并治第十五에 對한 研究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校室
鄭憲瑩 · 金明洙 · 安竣模 · 曹炅鍾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Jaundice According to the Morbid Pulse' in the Chapter 15 of Synopsis of Golden Chamber

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Won Kwang University

Jeong Heon-young · Kim Myeong-Soo · Ahn Jun-mo · Cho Gyeong-jong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Jaundice According to the Morbid Pulse in the Chapter 15 of *Synopsis of Golden Chamber* sets forth the classification, symptom, method of treatment, formula, prognosis of jaundice. The contents of this chapter can be induced by(from) yellowing and jaundice. These two disease patterns assume various aspects of disease cause, pathomechanism, symptom, prognosis, and treatment.

Jaundice was at first classified into liquor jaundice, dietary irregularly jaundice, black jaundice, and sexual taxation jaundice, later classified into liquor jaundice, dietary irregularly jaundice, black jaundice, sexual taxation jaundice, and yellow sweat. The disease cause and pathomechanism of jaundice are said to be due to the damp-heat, which is attacked with the evil of wind and dampness to affect the spleen-stomach and the liver. and to the inveterate drinking, damage by food, sexual taxation jaundice, sexual taxation, and vacuity taxation. This chapter mainly refers to jaundice as damp-heat, so that it lays down fundamental principles of clear heat and disinherit dampness. In the prognosis of jaundice, inhibited urination shows symptoms of jaundice, and neither inhibited urination nor damp-heat develops symptoms of jaundice. And jaundice with thirst is difficult to cure, and that the symptoms of the abdominal fullness is also difficult to cure, while jaundice without thirst is ease to cure. Of the 18 days of suffering from jaundice, the symptoms of jaundice get better before and after 10 days. I think, however, that getting worse of its symptoms makes more meaningful clinically.

Key Words : Jaundice, Synopsis of Golden Chamber, Pulse

I. 序 論

『金匱要略黃疸病脈證并治第十五』는 黃疸의 證治와 預候를 논술하였는데, 黃疸은 皮膚와 眼目에 모두 黃色이 나타나는 雜病¹⁾으로 西醫學에서는 빌리루빈

* 교신저자: 鄭憲瑩,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63) 850-6808, jikjae@wonkwang.ac.kr

1)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87. p. 812.

(bilirubin)의 沈着에 의한 組織의 노란색 變色을 말한다.²⁾

黃疸에 대하여 『素問平人氣象論』의 “溺黃赤安臥者 黃疸 … 目黃者黃疸”, 『靈樞論疾診尺』의 “身痛而色微黃 齒垢黃 爪甲上黃 黃疸也” 등 많은 記錄이 있는데 『黃帝內經』에 黃疸의 原因을 『素問六元正紀大論』에 “濕熱相搏 民病黃疸”이라 하여 濕熱에 의한 것으로 보았으며, 『靈樞經脈篇』의 “脾所生病者 舌本痛 … 黃疸不能臥”, “腎所生病者 口熱 … 黃疸”과 『素問玉機真藏論』의 “肝傳之脾 病名曰脾風 發瘰腹中熱 煩心出黃” 등의 記錄을 보면 黃疸는 肝脾腎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편에서도 黃疸는 濕熱이 脾胃와 腎膀胱에 영향을 주어 發病되며 女勞疸의 경우 腎陰不足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發病機轉을 『黃帝內經』과 같이 하고 있다.

仲景은 본 편에서 黃疸를 黃疸·穀疸·女勞疸·酒疸·黑疸로 구분하여 症狀治法 및 預候를 논술하였다. 黃疸의 分類를 發病原因으로 命名하였으니 가령 穀疸는 飲食과, 酒疸는 飲酒와, 女勞疸는 房勞와 關聯이 있으며, 預候에 있어서는 渴症의 有無와 腹滿으로써 可治와 難治를 구분하였으며, 모든 黃疸이 오래되도록 낫지 않으면 黑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黃疸의 病理機轉에 있어 濕熱寒濕燥結女勞虛勞 등의 觀點을 제시하였으나 주로 濕熱에 의한 것을 重點의으로 논술하여 治法을 汗吐下和溫清補消의 八法 가운데 清利濕熱의 治法을 重視하였다.

이러한 內容은 後世의 黃疸研究에 많은 영향을 주어 『千金要方卷十 傷寒發黃第五』, 『外臺秘要卷第四』, 『諸病源候論』, 『聖濟總錄』, 『景岳全書』 등의 많은 醫書에서 본 편의 內容을 全文이나 拔萃된 要點을 引用하고 있는 重要한 資料이며, 黃疸는 西醫學의 急慢性肝炎·肝硬變症·藥物性肝炎·肝癌 등에서 나타나므로³⁾ 이들의 治療에 본 편의 內容을 參考할 수 있으나 國內에서는 蔡⁴⁾가 原文의 懸吐와 註釋을 모아둔

연구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또한 본 편에는 後代의 黃汗과 新生兒黃疸에 관한 內容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에 校勘과 諸家의 註釋을 考察하여 原文과 治法을 理解하므로써 黃疸의 治療에 도움을 주고자 研究하였다.

II. 研究方法

본 논문은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總括 및 結語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1. 原文은 林億 등이 校正하고 趙開美가 校刊한 『金匱要略方論』⁵⁾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작은 글자로 된 文章도 모두 收容하였다.
2. 原文에 편의상 條文番號와 題目을 달았다.
3. 懸吐는 蔡⁶⁾의 『金匱要略精解』를 準하였다.
4. 校勘한 文獻과 略稱은 <표1>과 같다.
5. 본 論文에 引用한 註釋書는 <표2>와 같고, 註釋의 內容은 懸吐를 하여 脚註로 하였다.

	書名	編著者	略稱
1	金匱要略方論	俞樞	俞本
2	金匱要略直解	沈明宗	直解
3	千金要方	孫思邈	千金
4	外臺秘要	王焘	外臺
5	諸病源候論	巢元方	病源
6	古今醫統正脈全書	王肯堂	醫統
7	脈經	王叔和	脈經
8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澗	魏本
9	金匱要略心典	尤怡	尤本
10	金匱要略淺註補正	唐宗海	補正
11	金匱要略	李克光	李本
12	東醫寶鑑	許俊	寶鑑

표 1 校勘한 文獻 및 略稱

1, 2, 3은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2) E. Braunwald 외 著. 대한내과학회 譯. Harrison's principles Internal Medicine. 도서출판MIP. 서울. 2003. p. 260.

3) 김갑성 외. 實用東西醫學 臨床叢書. 서울. 정담. 2001.

4)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5) 張仲景 著.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金匱要略方論. 臺北. 裕昌德書局. 1960.

6)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書名	著者
1	金匱要略直解	程林
2	金匱玉函經二注	趙以德·周揚俊
3	金匱要略心典	尤怡
4	醫宗金鑑·金匱要略注	吳謙
5	金匱要略淺注	陳念祖
6	金匱要略廣注	李紘
7	金匱玉函要略輯義	丹波元簡
8	金匱要略淺注補正	唐宗海
9	金匱要略發微	曹家達
10	金匱要略論注	徐彬
11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澗
12	金匱要略編注	沈明宗

표 2 選注書目

1은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Ⅲ. 研究內容

第 1條. 黃疸의 病理機轉

【原文】

寸口脈이 浮⁽¹⁾而緩^{1X2)}하면 浮則爲風이오 緩則爲痺⁽³⁾니 痺는 非中風이라 四肢苦煩하고 脾色⁽⁴⁾必黃하니 瘀熱以行이라

【校勘】

- 1) 寸口脈 浮而緩: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師曰寸口脈 浮而緩”으로, 『心典』에는 “寸口脈而緩”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浮(부) : 浮脈. 浮脈은 가볍게 누르면 脈象이 잡히고, 무겁게 누르면 힘이 조금 減少되나 속은 비지 않으며, 손가락을 들면 손가락에 가득 차며 힘이 있는 脈象이다.⁷⁾
- (2) 緩(완) : 緩脈. 健康人의 正常的인 緩脈은 1呼吸에 4번 搏動하고, 浮中沈에 걸쳐 부드럽게 搏動하는 脈象이고, 病的인 緩脈은 늘어지고 輕快하지 않게 搏動하는 脈象이다.⁸⁾

7)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0. p. 98.

(3) 痺(비) : 閉의 뜻이다.⁹⁾

(4) 脾色(비색): 皮膚色과 顔色을 뜻한다.¹⁰⁾

【國譯】

寸口脈이 浮하면서 緩하면 浮脈은 風病이 되고, 緩脈은 痺證이 되니 痺證은 傷寒中風이 아니다. 四肢가 아프고 답답하고 皮膚와 顔面色은 반드시 黃色이 나 瘀熱이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考察】

本 條文은 脈象을 따라 黃疸의 病理機轉에 대하여 論述한 것으로서, 浮脈은 風邪이고, 緩脈은 濕邪이니¹¹⁾ 風邪는 陽邪로서 쉽게 熱로 變化되며, 濕邪는 陰邪로서 停滯되기 쉽고 脾는 燥를 좋아하고 濕을 싫어하는 特性이 있어서 濕은 脾를 쉽게 損傷시키니 熱과 濕이 脾에 鬱滯되어 黃疸이 發生된다.

“緩則爲痺”의 ‘痺’에 대하여 沈明宗은 “風濕이 鬱結되어 邪氣가 正氣를 閉塞한 것이니 痺는 閉의 뜻이다.”¹²⁾고 하여 閉塞의 의미로 보았으나, 丹波는 「平人氣象論」의 “緩而滑 曰熱中”, 「邪氣藏府病形」의 “緩者多熱” 등을 引用하여 緩脈을 胃熱로 보아 ‘痺’는 ‘痺’이 되어야 뜻이 통한다고 하였으니 둘 다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痺非中風”은 본 條文에서 黃疸의 發病機轉이 濕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素問·痺論』의 “風寒濕三氣雜至 合而爲痺也”의 일반적인 痺證이 아니기 때문에 後人들이 이를 混同할 것을 염려하여 仲景이 挿入한 것이다.

“四肢苦煩 脾色必黃 瘀熱以行”은 黃疸의 症狀과 病理機轉을 밝힌 것으로, 陽邪인 風熱이 諸陽之本인 四肢에 侵犯하고 四肢는 脾土가 主宰하기 때문에 四肢가 괴롭고 번거로우며¹³⁾, 또한 脾는 肌肉을 主宰하며 本色은 黃色이니 熱이 脾를 困迫하면 顔面과 肌肉

8)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0. p. 101.

9) 陳兆桓 : 痺는 有閉의 意思라

10) 李克光 : 皮膚顔色必黃이라

11) 尤怡 : 浮脈爲風하고 緩脈爲濕이라

12) 沈明宗 : 風濕鬱結하여 邪正爲痺하니 痺者는 閉也라

13) 徐彬 : 風熱은 乃陽邪니 陽邪入陽하고 四肢는 爲諸陽之本이니 邪入而苦煩이라

에 黃色이 나타나게 된다.¹⁴⁾

西醫學의인 觀點에서의 黃疸는 빌리루빈(bilirubin)의 침착에 의한 조직의 노란색 變色을 말한다. 빌리루빈의 조직 침착은 혈청 고빌리루빈혈증이 있는 경우에만 생기며 간질환 또는 약간 드물기는 하지만 용혈성 질환이 있다는 표시이다. 혈청 빌리루빈의 증가는 빌리루빈의 生成과 分解間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빌리루빈혈증은 빌리루빈의 과다생성, 빌리루빈의 흡수-접합과 분비의 장애 또는 손상된 간세포나 담관으로부터 비접합형 또는 접합형 빌리루빈의 逆流 등에 의해서 생긴다. 하루에 생성되는 250 내지 300mg의 빌리루빈의 약 70 내지 80%는 노화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hemoglobin)이 분해되어 생기고 나머지는 골수에 있는 적혈구계 세포의 미성숙 파괴와 미오글로빈(myoglobin)과 크리토크롬(crytochrome)과 같은 헴단백의 전환에 의해서 생긴다. 빌리루빈의 형성은 세망내피세포(reticuloendothelial cells)에서, 주로 비장과 간에서 일어난다. 세망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빌리루빈은 비수용성인데 빌리루빈이 혈액내에서 이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해되어야만 한다. 이 과정은 빌리루빈이 알부민과의 가역적, 비공유결합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 알부민과 결합된 비접합형(비포합형) 빌리루빈은 혈액을 통하여 간으로 이동된다. 간세포의 세포질에서 비접합형 빌리루빈은 리간딘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접합형(포합형) 빌리루빈이 형성된다. 담관을 통하여 담즙과 함께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상부 소장을 통과한다. 접합형 빌리루빈은 장 점막에서 흡수되지 않고 하부 회장과 대장에 도달하면 배타-글루쿠로니다제에 의하여 비접합형 빌리루빈으로 가수분해된다. 비접합형 빌리루빈은 정상 장내 세균에 의해서 환원되어 우로빌리노젠(urobilinogen)이라 불리는 테트라피롤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산물의 약 80 내지 90%는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또는 우로빌린이라고 불리는

오렌지 유도체로 산화되어 대변으로 배설된다. 우로빌리노젠의 나머지 10 내지 20%는 수동적으로 흡수되어 간 문맥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재분비된다. 극히 적은 양(대개 3mg/dl미만)은 간에서 흡수가 안 되고 신사구체를 여과하여 소변으로 배설된다.¹⁵⁾ 韓醫學에서 黃疸의 原因인 濕熱은 西醫學의 觀點으로 볼 때 빌리루빈의 생성과 분해에 불균형이 발생되어 혈중의 빌리루빈의 증가된 것이며, 本文의 ‘瘀熱’ 또한 같은 것으로 思料된다.

第 2條. 黃疸의 分類와 主症

【原文】

趺陽脈⁽¹⁾이 緊⁽²⁾而數⁽³⁾하면 數則爲熱이니 熱則消穀하고 緊則爲寒이니 食卽爲滿이라 尺脈浮는 爲傷腎이오 趺陽脈緊은 爲傷脾라 風寒相搏⁽⁴⁾하면 食穀卽眩¹⁾⁽⁵⁾하고 穀氣不消하면 胃中苦濁하고 濁氣下流⁽²⁾하면 小便不通하야 陰被其寒하고 熱流膀胱하야 身體盡黃하니 名曰穀疸이라

額⁽⁶⁾上黑하고 微汗出하며 手足中熱이 薄暮⁽⁷⁾卽發하고 膀胱急하며 小便自利하면 名曰女勞疸이니 腹如水狀이면 不治라

心中이 懊懣⁽⁸⁾而熱하며 不能食하고 時欲吐면 名酒疸⁽³⁾이라

【校勘】

- 1) 食穀卽眩: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食穀卽眩”으로 되어 있다.
- 2) 濁氣下流: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濁氣不流”로 되어 있다.
- 3) 名酒疸: 『金鑑』, 『心典』에는 “名曰酒疸”로 되어 있다.

【註釋】

- (1) 趺陽脈(부양맥): 衝陽脈의 다른 이름이며, 三部

15) E. Braunwald 외. 著. 대한내과학회 譯. Harrison's principles Internal Medicine. 도서출판MIP. 서울. 2003. pp. 260, 261.

14) 沈明宗: 然脾鬱困極하면 眞色走於肌膚하니 脾色必黃이라

九候의 下部人으로 足太陰에 속한다.

- (2) 緊(긴): 緊脈. 緊脈의 體狀은 脈의 넓이, 길이, 浮沈에 關係없이 줄을 잡아당기거나 새끼줄을 돌리는 것처럼 손가락을 치는 것이다.¹⁶⁾
- (3) 數(삭): 數脈. 數脈은 正常的인 成人의 경우 醫師의 1呼吸에 患者의 脈이 6回 이상 搏動하는 脈이다.¹⁷⁾
- (4) 搏: 交結의 뜻¹⁸⁾. *搏: 攪也, 움킬 박
- (5) 眩: 亂也, 어지러울 현
- (6) 額: 額頰, 이마 액
- (7) 薄暮(박모): 黃昏
- (8) 懊懣(오뇌): 답답하고 괴로워 편안하지 않음.¹⁹⁾

【國譯】

趺陽脈이 緊하면서 數하면 數脈은 胃熱이 있는 것이니 胃에 熱이 있으면 水穀이 消化가 잘 되고, 緊脈은 脾에 寒邪가 있는 것이니 飲食을 먹으면 脹滿하게 되며, 尺部에 浮脈이 나타나는 것은 腎이 損傷된 것이고, 趺陽脈이 緊脈으로 나타나는 것은 脾가 損傷된 것이다. 風과 寒이 서로 交結되면 飲食을 먹으면 눈이 어지럽고, 穀氣가 消化되지 않으면 胃中에 濁氣가 쌓여 高腫스러우며, 濁氣가 아래로 膀胱으로 流入되면 小便을 잘 보지 못한다. 脾가 寒邪의 侵入을 받고 熱이 膀胱으로 流入되어 全身이 黃色이 되니 穀疸이라 한다. 額部에 黑色이 나타나고 약간 땀이 나며 손바닥과 발바닥에 熱이 나고 黃昏무렵에 나타나며 小腹部가 당기고 아프나 小便은 正常的이면 女勞疸이니 水氣病처럼 腹部가 脹滿하면 치료할 수 없다.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워 편안하지 않고 뜨겁고 아프며 飲食을 먹을 수 없고 때로 吐하려고 하는 것을 酒疸이라 한다.

【考察】

본 條文은 脈象을 따라 穀疸, 女勞疸, 酒疸의 發病

機轉을 논술하였다.

黃疸은 脾胃로부터 시작되므로 脾胃를 診察하는 趺陽脈을 살폈으며, 緊脈은 寒邪가 營氣를 損傷시켜 脾로 들어간 것이며, 數脈은 風邪가 衛氣를 손상시키고 胃에 들어가 熱로 된 것이니 胃의 風邪가 熱로 변화되면 水穀을 消化시키고, 脾의 寒邪로 인해 消化시키지 못하니 飲食을 먹으면 脹滿하게 된다.²⁰⁾

“尺脈浮爲傷腎 趺陽脈緊爲傷脾”에 대하여 吳謙 등은 脈象으로 女勞疸과 穀疸을 구분하여 尺脈浮은 女勞疸이고, 趺陽脈緊은 穀疸로 보았고²¹⁾, 陳修園은 脾熱腎寒으로 黃疸이 되는 病機로 보았고²²⁾, 尤怡는 腎에 風邪가 侵犯하고 脾에 熱邪가 侵犯하여 黃疸이 되는 것으로 구분하였고, 直解에는 위의 “趺陽脈 數而緊”을 註釋한 것으로 보았고²³⁾, 今釋에는 衍文으로 보았으나²⁴⁾ 앞뒤의 文脈上 脈象으로 女勞疸과 穀疸을 구분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風寒相搏”에서 “名曰穀疸”까지는 穀疸의 發病機轉과 증상을 설명하였다. 穀疸의 原因은 原文에 風寒으로 되어 있는데 尤怡는 腎이 風邪를 만나면 熱이 발생하고 脾가 寒邪를 만나면 濕이 발생하니 熱과 濕이 脾胃의 運化를 막아서 黃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⁵⁾ 穀疸의 症狀이 飲食을 먹으면 眩暈이 발생하는 것은 濕과 熱이 뒤섞여 濁氣가 올라가 巔頂을 막기 때문이며²⁶⁾, 穀氣가 消化되지 않아 胃에 濕熱이 쌓여 발생된 濁氣가 아래로 膀胱으로 내려가게 되

- 20) 沈明宗: 疸病은 始於脾胃 故로 以趺陽脈辨이라 見脈緊而數者는 緊爲寒邪傷營而入脾하고 數爲風邪傷衛入胃而化熱하니 然胃風化熱하여 胃熱則消穀하고 脾寒不磨하니 食則爲滿이라
- 21) 吳謙: 若尺脈不沈而浮 則爲傷腎하니 腎傷病疸이면 亦爲女勞疸也오 胃脈不緩而緊 則爲傷脾하니 脾傷病疸이면 亦爲穀疸也라
- 22) 陳修園: 尺脈浮하고 趺陽脈緊은 爲腎寒脾熱이니 亦能鬱而成疸이라
- 23) 直解: 尺脈浮則精虛 而腎氣有不固之象 故로 知傷腎하고 腎傷 故로 趺陽而數見矣오 又脾陽得健則氣賞溫暢 而不至結體나 趺陽脈緊則陽衰하여 而脾氣有凝斂之象 故로 知傷脾하니 脾傷 故로 趺陽脈以緊見矣라 二句는 是自注上文之所以寒熱互見也라
- 24) 今釋: 此二句는 盖後人傍注를 傳寫者가 混入正文耳라
- 25) 尤怡: 腎得風而生熱하고 脾得寒而生濕하니 又黃病之原也라
- 26) 曹家達: 食穀即眩者는 濕與熱淆雜而濁氣上冒於顛也라

- 16) 成百萬,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0. p. 99.
- 17) 成百萬,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0. p. 99.
- 18) 武長春, 張登本 主編, 內經詞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38
- 19) 尤怡: 懊懣는 鬱悶不寧之意라

고²⁷⁾ 濁氣가 膀胱에 流入되기 때문에 小便不通하게 되고²⁸⁾, 또한 膀胱은 太陽經으로서 皮膚와 表分을 主宰하기 때문에 全身에 黃色이 되는 것은 濕熱의 색이 겹으로 나타나는 것이다.²⁹⁾

陳은 이 부분에 대하여 穀疸의 發病을 두 部分으로 구분하여 “風寒相搏”과 “陰被其寒 熱流膀胱”은 外感을, “穀氣不消”, “胃中苦濁”는 飲食이 消化되지 않아서 穀疸이 發病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³⁰⁾, 뒤의 “陰被其寒 熱流膀胱”의 “陰”은 太陰脾를 가리키니 脾寒하여 濕이 발생되어 胃의 熱과 함께 膀胱으로 들어가 小便不利하게 되어 黃疸이 發病하여 飲食과 關聯이 있기 때문에 穀疸이라고³¹⁾ 한 것에 미루어 보면 黃疸이 모두 風寒을 받아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風이나 寒이 脾胃에 侵犯하여 濕熱이 鬱結되어야 發病되는 것이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처음 風寒의 外邪를 받아 안으로 脾胃가 손상되어 水穀을 消化하지 못하여 穀疸이 發病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思料된다.

“額上黑 微汗出”로부터 “名曰女勞疸 腹如水狀 不治”까지는 女勞疸의 症狀과 預後를 밝혔다. 女勞疸은 房勞過度가 原因인 것은 모든 註釋家들의 공통된 見解이나, 發病機轉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니 魏荔澗은 命門火가 衰한 것으로 보았고³²⁾, 沈明宗은 房勞過度로 腎이 損傷된 것으로 말미암아 腎水가 虧損되고 陽火가 旺盛한 것으로 보았다.³³⁾

女勞疸의 症狀 가운데 ‘額上黑’은 房勞過度로 腎이 손상되어 腎의 本色인 黑色이 나타나는 것이고³⁴⁾, ‘微汗出’하는 것은 腎氣가 不足하여 안으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고³⁵⁾, ‘手足中熱 薄暮即發’은 陰虛로 內熱이 발생된 것이며, ‘膀胱急’은 小腹部가 당기고 편

치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 腎陰이 不足하여 小腹部를 濡養하지 못한 때문이며³⁶⁾, ‘小便自利’하는 것은 女勞疸이 濕熱로 인한 것이 아니라 腎陰不足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女勞疸의 預後는 水氣病처럼 腹部가 脹滿하게 되면 腎과 脾가 모두 敗壞된 것이므로 치료하기 어려운데³⁷⁾, 西醫學에서도 黃疸이 있으면서 동시에 腹水가 있으면 肝硬變症이거나 腹膜轉移를 동반한 악성종양을 시사³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思料된다.

“心中懊懣而熱 不能食 時欲吐 名酒疸”은 酒疸의 症狀를 설명한 것으로 飲酒過度가 原因이며 술은 濕熱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워 편안하지 않는 것이며, 飲食을 먹지 못하고 吐하려고 하는 것은 胃에 濕熱로 인하여 氣가 壅滯되어 上部로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다.³⁹⁾

第 3條. 寒濕黃疸

【原文】

陽明病⁽¹⁾에 脈遲⁽²⁾者¹⁾는 食難用飽하고 飽則發煩 頭眩하며 小便必難²⁾하니 此欲作穀疸³⁾이라 雖下之나 腹滿如故⁴⁾하니 所以然者는 脈遲故也⁵⁾라

【校勘】

- 1) 脈遲者: 『外臺』, 『心典』에는 “脈遲”로 되어 있다.
- 2) 食難用飽 飽則發煩頭眩 小便必難: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食難用飽 飽則發寒 頭眩者 必小便難”으로, 『外臺』에는 “食難用飽 飽則發煩 頭眩者 必小便難”으로 되어 있다.
- 3) 此欲作穀疸: 『外臺』에는 “此欲爲穀疸”로 되어 있다.

27) 沈明宗: 胃中風濕流於膀胱 則爲熱流膀胱이라
 28) 吳謙: 濁氣流於膀胱 故로 小便不通也라
 29) 魏荔澗: 膀胱은 太陽之經也니 主皮膚하고 司表分하니 所以身體盡黃은 瘵熱之色이 誠中形外矣라
 30)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518
 31) 陳兆桓: 金匱要略精義, 文光圖書有限公司, 臺北, 1984, p241
 32) 魏荔澗: 轉救諸腎은 不止由命門之火衰하고 累及胃土也라
 33) 沈明宗: 此는 由房勞傷腎하여 陰水虧而陽火盛이라
 34) 吳謙: 額上黑은 腎病色也라
 35) 魏荔澗: 微汗出은 腎氣不足以內守也라

36) 陳紀藩: 膀胱急은 指小腹拘急不舒니 此는 由腎陰不足하여 小腹失去濡潤而致라
 37) 吳謙: 腹滿如水狀은 腎脾兩敗 故로 謂不治也라
 38) E. Braunwald 외 著. 대한내과학회 譯. Harrison's principles Internal Medicine. 도서출판MIP. 서울. 2003. p. 263.
 39) 李昉: 酒性濕熱하니 心中懊懣而煩하고 不食欲吐者는 胃爲濕熱所困하여 氣壅上逆하여 이라爲酒疸

- 4) 腹滿如故: 『外臺』에는 “其腹必滿”으로 되어 있다.
 5) 所以然者 脈遲故也: 『外臺』에는 “以其脈遲故也”로 되어 있다.

【註釋】

- (1) 陽明病(양명병): 여기서는 不大便, 腹滿의 증상이 있는 病症을 가리킨다.
 (2) 遲: 遲脈을 말한다. 遲脈은 醫師의 1呼吸에 患者의 脈이 3번 搏動하는 脈象이다.⁴⁰⁾

【國譯】

陽明證과 類似하나 脈遲한 사람은 飲食을 배불리 먹을 수 없고, 배불리 먹으면 煩熱과 頭眩이 발생하며 반드시 小便을 보기가 어려우니 이는 穀疸이 發生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록 瀉下시켜도 腹滿이 減少되지 않으니 이러한 까닭은 脈이 遲하기 때문이다.

【考察】

본 條文은 寒濕穀疸의 病理機轉을 논술하였다. 앞 條文의 穀疸은 胃熱에 의한 것이므로 數脈이 나타나는데, 본 條文의 穀疸은 도리어 遲脈이 나타나니 이는 陽明虛寒證에 속한다. 따라서 脾가 虛寒하여 水穀을 消化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배가 고파서 飲食을 먹으려 하나 배불리 먹을 수 없고 배불리 먹으면 煩熱이 나고, 脾가 健運하지 못하므로 淸氣는 上升하지 못하여 頭眩하고 濁氣는 下降하지 못하여 小便難하게 되어 穀疸이 되려고 한다.⁴¹⁾

이러한 症狀은 脾寒하여 水穀을 消化하지 못하면 穀氣가 鬱滯되어 熱이 발생되나 胃에 實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瀉下시키더라도 腹滿이 없어지지 않는다.⁴²⁾

第 4條. 酒疸의 主症

【原文】

夫病酒黃疸은 必小便不利니 其候⁽¹⁾는 心中熱足下熱이 是其證⁽²⁾也¹⁾라

【校勘】

- 1) 是其證也: 『外臺』에는 “是其證明也”로 되어 있다.

【註釋】

- (1) 候: 徵兆, 징조 후
 (2) 證: 證據, 증거 증

【國譯】

酒黃疸을 앓으면 반드시 小便이 不利하니 그 徵候는 가슴이 뜨겁고 발바닥이 뜨거우니 이것이 그 證據이다.

【考察】

본 條文들은 酒疸의 주된 症狀과 治療原則을 밝혔다.

술의 성질은 濕熱이 매우 甚한데⁴³⁾ 濕熱이 膀胱으로 流入되어 膀胱의 氣化가 障礙되기에 小便不利하게 된다. 또한 濕熱이 上部로 치밀어서 心中熱하고, 아래로 머물러서 足下熱하게 된다. 따라서 『傷寒論』에도 “若小便自利者 不能發黃”이라 하였다.

앞에서 女勞疸에 ‘手足中熱’의 症狀이 있어서 酒疸의 ‘心中熱 足下熱’과 類似한데 女勞疸은 腎虛로 인한 것인 반면 酒疸은 濕熱로 인한 것이어서 다르며, 또한 女勞疸은 顏色이 ‘額上黑’이라 하였듯이 黑色이 나타나지만 酒疸은 濕熱로 인하여 身黃目黃·小便黃이 나타난다.⁴⁴⁾

西醫學에서 飲酒로 黃疸이 발생되는 機轉은 술은 體內에 貯藏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酸化過程을 거치게 되는데 飲酒量의 2-10%는 腎이나 肺로 排泄되고, 90-98%는 體內에서 代謝되며 이 가운데 90%는 肝에서 酸化過程이 이루어진다. 體內에서 알코올의 대사는 胃腸에서부터 시작되는데 胃腸에 존재하는 알코올 分解酵素는 肝에 존재하는 종류와는 亞型이 다르며, 대개 알코올의 濃도가 높을 때 活性化되어 飲酒

40) 成百萬,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0. p.101

41) 吳謙: 穀疸屬胃熱하니 脈當數이나 今脈遲는 脾臟寒也라 寒不化穀하니 所以雖飢欲飲食이나 食難用飽하고 飽則煩悶이라 …… 淸者는 阻於上升 故로 頭眩하고 濁者는 阻於下降 故로 小便難이라

42) 尤怡: 脈遲胃弱 則穀化不速하고 穀化不速 則穀氣鬱而生熱하니 而非胃有實熱 故로 雖下之而腹滿不去라

43) 李炆: 大寒凝海나 惟酒不冰하니 以其濕熱甚也라

4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 440.

量 약 25%까지 代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알코올은 肝細胞 細胞質에서 분해되어 acetaldehyde가 된다. 肝에서 알코올 분해는 알코올의 分解酵素(alcohol dehydrogenase. ADH), cytochrome P-450 II E1으로 밝혀진 MEOS(microsomal ethanol oxidation system) 및 catalase 등 세 종류가 관여하는데 보통의 경우 알코올 分解酵素(ADH)가 약 90% 정도를 담당한다. 알코올이 ADH에 의해 분해되면서 환원성(수소이온)을 가진 助酵素인 NADH의 量이 증가하게 되는데, 간세포가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약 160g/日)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NADH와 acetaldehyde를 처리하기 위해 肝內 代謝過程이 한 방향으로만 계속되어 lactic acid 生成 增加, 尿酸 生成 增加, ketoacidosis, 脂肪蓄積, 低血糖 등이 나타나게 된다. ADH가 분해할 수 있는 量을 超過한 알코올 섭취 후에는 cytochrome P-450 II E1의 MEOS가 활성화되어 free radical을 만들게 되고 처리되지 못한 aldehyde는 lipid peroxidation 및 collagen 合成 增加 그리고 여러 肝細胞內 단백질과의 acetaldehyde protein adduct를 형성하여 肝의 심각한 機能 및 構造障害를 초래하게 되어⁴⁵⁾ 脂肪肝(fatty liver), 알코올성 肝炎(alcoholic hepatitis) 및 알코올성 肝硬變症(alcoholic cirrhosis)를 유발하여⁴⁶⁾ 黃疸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第 5條. 酒疸의 症狀과 脈象에 따른 治法

【原文】

酒黃疸者는 或無熱靖言¹⁾하며 小腹滿欲吐¹⁾하고 鼻燥²⁾라 其脈浮者는 先吐之하고 沈²⁾弦³⁾者는 先下之라

【校勘】

- 1) 或無熱靖言 小腹滿欲吐: 『醫統本』에는 “或無熱 譫言 腹滿欲吐”로,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

45) 全國韓醫科大學 肝系內科學教授. 肝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2001. p. 307.

46) 全國韓醫科大學 肝系內科學教授. 肝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2001. p. 308.

證第九』에는 “或無熱靖言了了 腹滿欲吐”로, 『衍義』에는 “或無熱 清言了了 腹滿欲吐”로, 『金鑑』에는 “或無熱譫言 小腹滿欲吐”로, 『金鑑』『廣注』에는 “或無熱靜言了了 腹滿欲吐” 되어 있다.

- 2) 鼻燥: 『外臺』에는 “鼻躁”로 되어 있다.

【註釋】

- (1) 靖: 立靜, 머물러서 조용할 정
(2) 沈: 沈脈. 沈脈은 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면 脈이 感應되지 않고, 무겁게 눌러야 잡히는 脈象이다.⁴⁷⁾
(3) 弦: 弦脈. 弦脈은 그 體狀이 바르고 곧으면서 長하여 絃樂器의 줄을 누르는 것 같다.⁴⁸⁾

【國譯】

酒黃疸을 앓는 사람은 간혹 熱이 없고 조용하게 말하며 小腹部가 脹滿하고, 吐하려 하고 口가 마른다. 浮脈인 경우에는 먼저 吐劑를 쓰고, 脈이 沈弦한 경우에는 먼저 下劑를 쓴다.

【考察】

酒疸은 반드시 가슴에 煩熱이 있으나 간혹 煩熱이 없고 言語가 錯亂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濕熱이 心中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고⁴⁹⁾, 小腹이 脹滿한 것은 濕熱이 膀胱에 鬱結되기 때문이고⁵⁰⁾, 嘔吐를 하려고 하고 口가 마르는 것은 濕熱이 上部로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다.⁵¹⁾

酒疸에 浮脈은 病이 膈膜의 上部에 있는 것이므로 吐法을 사용하여야 하고, 沈弦脈은 病이 裏部에 있는 것이므로 下法을 使用하여야 하니 『素問陰陽應象大論』에 “病邪가 上部에 있으면 吐法으로 越出시키고 中滿한 것은 瀉下시킨다(其高者 因而越之也 中滿者 瀉之於內也)”고 하였다.⁵²⁾

47) 成百萬.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0. p. 99.

48) 成百萬.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0. p. 99.

49) 尤怡: 酒黃疸者는 心中必熱이나 或亦有不熱靖言了了者하니 則其熱不聚於心中이라

50) 吳謙: 小腹滿은 濕熱蓄於膀胱也라

51) 尤怡: 或從上衝爲欲吐鼻燥也라

52) 李彥: 浮脈屬陽하야 病在膈上 故로 先吐之니 經所謂其高者 因而越之也오 沈弦脈屬陰하야 病在腹裏 故로 先下之

第 6條. 酒疸의 治法

【原文】

酒疸에 心中熱하야 欲嘔者¹⁾는 吐之면 愈²⁾라

【校勘】

- 1) 欲嘔者: 『金鑑』, 『心典』에는 “欲吐者”로 되어 있다.
- 2) 吐之愈: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瘡脈證第九』에는 “吐之即愈”로, 『外臺』에는 “當吐之即愈”로 되어 있다.

【國譯】

酒疸을 앓는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 嘔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吐하게 하면 낫는다.

【考察】

飲酒過度로 濕熱이 치밀어 心中熱하고 또한 濕熱이 胃에 쌓여 胃氣가 上逆되어 嘔吐를 하려고 한다. 嘔吐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邪熱이 排出되려고 하는 것이므로 吐法을 쓰면⁵³⁾ 나오니 이른바 ‘因勢利導’이다.

第 7條. 黑疸

【原文】

酒疸을 下之久久면 爲黑疸이니 目靑面黑하며 心中如噉⁽¹⁾蒜⁽²⁾蠶⁽³⁾狀⁽¹⁾ 하고 大便正黑하고 皮膚를 爪甲호대 不仁⁽²⁾하고 其脈이 浮弱⁽⁴⁾이라 雖黑이나 微黃故로 知之⁽⁵⁾라

【校勘】

- 1) 心中如噉蒜蠶狀: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瘡脈證第九』에는 “中心如噉蒜蠶狀”으로, 『心典』에는 “中心如噉蒜狀”으로 되어 있다.
- 2) 皮膚爪甲不仁: 『醫統本』,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瘡脈證第九』, 『衍義』, 『金鑑』, 『心典』, 『廣注』에는 “皮膚爪之不仁”으로, 『外臺』에는 “皮膚抓之不仁”으로 되어 있다.

니 經所謂中滿者 瀉之於內也라

53) 徐彬: 正熱邪欲出之機 故로 曰吐之愈라

3) 雖黑微黃 故知之: 『外臺』에는 “故知之”로 되어 있다.

【註釋】

- (1) 噉: 啖也, 씹을 담
- (2) 蒜: 葷菜, 마늘 산
- (3) 蠶: 與諸味相濟成, 생체 제
- (3) 弱: 弱脈을 말한다. 弱脈은 매우 軟弱하면서 沈細한 脈象이다.⁵⁴⁾

【國譯】

酒疸을 瀉下하여 오래되면 黑疸이 되니 눈이 푸르고 顏色이 검으며 가슴은 마늘을 씹은 듯 하고 大便은 아주 검으며 皮膚를 손톱으로 눌러도 아픔을 알지 못하고 脈은 浮弱脈이다. 비록 女勞疸처럼 顏色이 검으나 약간의 黃色을 띠므로 黑疸임을 알 수 있다.

【考察】

앞의 條文에서 酒疸에 脈이 沈弦하면 下法을 사용하는 例가 있으나 반드시 腹滿의 症狀이 있는 裏實證인 경우라야 下法을 사용할 수 있고, 裏實證이 아니면 下法을 사용할 수 없다.⁵⁵⁾ 酒疸에 下法을 사용하는 것은 瀉下하는 藥材로써 濕熱의 實邪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나 正氣는 도리어 衰弱하게 되어 邪氣는 實하고 正氣는 虛하여 濕熱의 邪氣를 없애지 못하고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어 黑疸이 된다.⁵⁶⁾

肝이 目에 開竅하니 濕熱이 위로 熏蒸하면 눈이 淸明한 氣를 잃고 도리어 肝의 本色인 靑色이 나타나며, 陽明脈이 面部를 循行하니 胃의 濕熱로 인하여 面黑하게 된다. 또한 가슴이 마늘을 씹은 듯한 것은 濕熱이 熏蒸하여 心火가 안에서 煩灼한 것이고, 大便이 검은 것은 濕熱이 大腸으로 滲入한 때문이고, 손톱으로 皮膚를 눌러도 통증을 모르는 것은 濕熱이 밖

54) 成百萬.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0. p.101

55) 尤怡: 酒疸雖有可下之例나 然이나 必審其腹滿脈沈弦者而後下之오 不然이면 濕熱乘虛陷入血中 則變爲黑疸이라

56) 魏荔澗: 酒疸에 有可吐之法하고 又有可下之法이나 然이나 下之而久久爲黑疸하야 面靑面黑하고 心中如噉蒜蠶狀하고 大便正黑하고 皮膚爪之不仁者는 又何故也아 則邪實而正虛니 下藥은 欲祛其濕熱之實邪하고 而正氣正陽衰弱不足以勝之하니 邪不能祛하고 留連不去하야 入而愈深하야 黃變爲黑이라

으로 壅滯되었기 때문이다. 浮脈이 나타나는 것은 邪氣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며, 弱脈이 나타나는 것은 正氣가 안에서 不足하기 때문이다.⁵⁷⁾

“目青面黑”은 西醫學에서도 혈청 빌리루빈치가 증가함에 따라 피부색이 연한 환자에게서는 피부가 노랗게 착색되고 혈청 빌리루빈이 증가된 기간이 장기화되면 피부가 푸른색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푸른색은 빌리루빈이 빌리베르딘(biliverdin)으로 酸化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⁵⁸⁾

慢性 肝疾患이 肝硬變症으로 진행함에 따라 門脈壓이 亢進되며 脾機能亢進으로 血小板이 減少하고, 식도정맥류·소화성궤양으로 인한 출혈과 膽汁鹽의 分泌障礙에 따른 脂肪便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大便이 黑色으로 변하는 것은 腸內出血로 인한 것이고, 만약 大便을 漉泄하는 것은 脂肪便에 따른 吸收障礙로 不良한 預後이다.⁵⁹⁾

酒疸이 변하여 된 黑疸과 女勞疸에 모두 顏色이 黑色으로 나타나는데, 女勞疸은 房勞過度로 인한 腎病으로서 腎의 本色인 黑色만이 나타나는 반면에 黑疸의 경우에는 酒疸을 下法으로 誤治한 것이기 때문에 女勞疸과는 달리 약간의 黃色이 나타나므로 “雖黑微黃 故知之”라고 하였다.

第 8條. 黃疸에 火劫을 誤用하였을 때의 症狀과 治法

【原文】

師曰 病黃疸하야 發熱煩喘^{1X(1)}하고 胸滿口燥者를 以病發時에 火劫其汗²⁾하면 兩熱이 所得^{2X(3)}이나 然이나 黃家所得은 從濕得之하야 一身盡發熱而黃³⁾하니 壯熱하야 熱在裏하면 當下之라

57) 李炆: 肝開竅於目하고 濕熱上蒸하니 目失清明之氣而反見本藏之色也. 陽明脈이 循面하고 胃熱 故로 面黑也. 心中如噉蒜齏狀者는 濕熱熏蒸하야 心火內煩也. 大便正黑은 濕熱下滲也. 皮膚不仁은 濕熱外壅也. 脈浮者는 邪氣發於外. 弱者는 正氣虛於內라

58) E. Braunwald 외 著. 대한내과학회 譯. Harrison's principles Internal Medicine. 도서출판MIP. 서울. 2003. p. 260.

59) 全國韓醫科大學 肝系內科學教授. 肝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2001. p. 72.

【校勘】

- 1) 發熱煩喘: 『心典』에는 “發熱煩渴”로 되어 있다.
- 2) 兩熱所得: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 『衍義』, 『金鑑』에는 “兩熱相得”으로 되어 있다.
- 3) 一身盡發熱而黃: 『醫統本』에는 “一身盡發熱面黃”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喘: 喘息, 혈떡거릴 낄
- (2) 火劫其汗: 艾灸·溫鍼 또는 薰法을 使用하여 억지로 汗을 내는 것.⁶⁰⁾
- (3) 兩熱所得: 火와 熱이 서로 엉기는 것.⁶¹⁾

【國譯】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黃疸을 앓아서 發熱하고 煩燥하며 숨이 차고 胸滿하고 口燥한 사람을 發病하였을 때에 艾灸나 溫鍼 또는 薰法 등으로써 억지로 汗을 내면 두 熱이 습하여진다. 그러나 黃疸은 濕으로 발생하는 것이니 온몸에 發熱하면서 노랗게 되는 것은 壯熱로 인한 것이니 熱이 裏部에 있으면 마땅히 瀉下해야 한다.

【考察】

본 條文은 黃疸을 艾灸와 溫鍼 등으로 강제로 發汗시켜서 誤治한 것을 논술하였다.

黃疸에 下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下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 條文은 下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밝혔다. 黃疸에 發熱, 煩燥하고 숨이 차고 胸滿하고 口燥한 것은 實邪가 腹裏에 가득하여 나타난다. 이 原因은 다른 것이 아니라 發病하였을 때 溫鍼이나 艾灸 등으로 억지로 發汗시킨 때문이다. 病이 熱로 인하여 發病하였는데 다시 火로써 發汗을 시켜서 表와 裏의 熱이 합해지나 濕邪와 뒤섞이지 않으면 단지 火邪의 病이 되고 黃疸이 되지는 않는다. 오직 濕邪가 있는 뒤에 全身에 發熱하고 發黃하는 것은 濕과 熱이 뒤섞이기 때문이다. 肚腹의 안에 實熱이 裏部에 있으면 瀉下시키는 것이

60) 李克光.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6. p. 492.

61) 李克光.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6. p. 492.

당연하니 傷寒論에서 裏部에 熱이 있는 것과 全身에 黃疸이 발생하는 것의 治法은 다르지 않다.⁶²⁾

第 9條. 濕熱黃疸

【原文】

脈沈하고 渴欲飲水하며 小便不利者는 皆發黃이라

【國譯】

脈이 沈하고 渴症이 나서 물을 마시려하며 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은 모두 黃疸이 발생한다.

【考察】

본 條文은 濕熱黃疸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脈沈은 病邪가 裏部에 있는 것이고, 渴症이 나서 물을 마시려 하는 것은 熱이 壅滯된 것이고, 小便不利한 것은 濕이 鬱滯된 것이니 濕熱이 裏部에 鬱滯된 것이므로 發黃하게 된다.⁶³⁾

第 10條. 寒濕黃疸

【原文】

腹滿舌痿黃⁽¹⁾하고 燥不得睡^{1X(2)}하면 屬黃家라 舌痿는 疑作身痿라

【校勘】

1) 燥不得睡: 『醫統本』·『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金鑑』·『心典』·『廣注』에는 “躁不得睡”로, 『衍義』에는 “躁不得臥”로 되어 있다.

【註釋】

- (1) 痿黃(위황): 핏기가 없이 누렇다.
- (2) 睡: 睡眠, 잠잘 수

【國譯】

腹部가 脹滿하고 몸이 瘦瘠하면서 노랗고 煩燥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 黃疸에 속한다. 舌痿는 아마도 身痿로 해야 한다.

62) 魏荔澗: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1997, p218

63) 吳謙: 脈沈은 主裏也오 渴欲飲水는 熱瘧也오 小便不利는 濕鬱也니 熱瘧濕鬱於裏 故로 發黃也라

【考察】

본 條文에 대하여 尤怡 등은 濕熱黃疸로 보았고, 胡庚辰 등은 寒濕黃疸로 보는 등 見解가 일치하지 않는다.

濕熱黃疸로 보는 見解는 脾의 經脈이 舌本에 連絡되고 舌下에 散布하니 腹部脹滿과 舌痿하게 되는 것은 脾氣가 運行되지 않는 것이고, 脾氣가 運行되지 않는 것은 濕邪가 있기 때문이며, 煩躁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熱이 있기 때문이니 濕熱로 인하여 黃疸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았다.⁶⁴⁾

寒濕黃疸로 보는 見解는 腹滿이 脾陽虛衰로 인하여 발생되어서 腹部를 따뜻하게 하면 腹滿이 減少되어 便安하며 腹部가 누르면 柔軟한 特徵이 있고, ‘舌痿黃’은 ‘身痿黃’의 잘못으로서 寒濕이 오래도록 肝膽에 영향을 주어 肝이 疏泄機能을 잃어서 全身에 發黃하는데 皮膚色이 어둡고 潤澤하지 않으며, 脾胃의 陽氣가 虛弱하여 寒濕이 脾胃를 不和하게 하면 누워도 편안하지 않으므로 躁動하며 잠을 자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⁶⁵⁾

第 11條. 黃疸의 預後

【原文】

黃疸之病¹⁾은 當以十八日爲期⁽¹⁾니 治之十日以上이면 瘥^{2X(2)}나 反極이면 爲難治³⁾라

【校勘】

- 1) 黃疸之病: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師曰黃疸之病”으로 되어 있다.
- 2) 治之十日以上瘥: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治之十日以上爲瘥”로 되어 있다.
- 3) 反極 爲難治: 『醫統本』·『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金鑑』·『心典』에는 “反劇 爲難治”로,

64) 尤怡: 脾之脈이 連舌本하고 散舌下하니 腹滿舌痿는 脾不行矣라 脾不行者는 有濕하고 躁不得睡者는 有熱하니 熱濕相搏則黃疸之候也라

65) 張玉清 編者: 胡庚辰 評注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p305

『衍義』에는 “反劇者 難治”로, 『廣注』에는 “反劇者 爲難治”로 되어 있다.

【註釋】

- (1) 期: 周年, 晝 夜
- (2) 瘥: 瘥也, 病나을 차

【國譯】

黃疸病은 바로 十八日로 週期를 삼으니 十日 以上 治療하면 나오나 도리어 심해지면 治療하기 어렵다.

【考察】

‘十八日’로 期限을 삼은 것에 대하여 ‘脾不主時’에 입각하여 十八日 동안 土氣가 旺盛한 것⁶⁶⁾으로 보는 見解가 있고, 黃疸이 濕熱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濕熱을 制壓할 수 있는 陰氣가 旺盛하려면 陰數인 ‘六’이 세 번 지나야 한다⁶⁷⁾는 見解도 있으며, 十八日이 지나야 氣가 有餘하기 때문에 十八日을 週期⁶⁸⁾로 삼았다.

西醫學에 黃疸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溶血로 인한 新生兒 黃疸은 대개 14日 이내에 해소되며, 급성 바이러스성 肝炎으로 인한 황달은 대개 1週 사이에서 最高度에 달하고 이후 점차 減少하며 黃疸의 持續期間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6週 내지 8週 이내에 消失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黃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臨床經過가 매우 짧으며, 早期에 증상이 消失되면서 肝機能이 恢復된다. 藥物로 유발된 黃疸은 약물을 중단하면 대개 2주 내지 3주 이내에 소실되며, 黃疸이 長期間 지속되면 膽汁性 肝硬變症을 유발할 수 있다. 電擊性肝炎에서는 黃疸의 발생이 급격하면서 매우 길어지고 2週 이내에 사망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외에 閉塞性 黃疸을 유발하는 肝癌, 膽道癌, 脾臟癌 등은 病因因子를 제거하지 않는 한 黃疸은 持續的이며 더욱 惡化된다. 따라서 預後가 良好한 질환에

서 유발되는 黃疸은 대개 10日을 前後로 점차 好轉되나 도리어 惡化되는 경우는 대부분 預後가 不良하다⁶⁹⁾. 따라서 본 條文은 실제 임상에 意義가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第 12條. 黃疸의 預後

【原文】

疸而渴者¹⁾는 其疸을 難治오 疸而不渴者는 其疸을 可治며 發於陰部면 其人必嘔하고 陽部²⁾면 其人振寒而發熱也라

【校勘】

- 1) 疸而渴者: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又曰疸而渴者”로 되어 있다.
- 2) 陽部: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衍義』·『金鑑』에는 “發於陽部”로 되어 있다.

【國譯】

黃疸이 있으면서 渴症이 있는 사람은 黃疸을 治療하기 어렵고, 黃疸이 있으면서 渴症이 없는 사람은 黃疸을 治療할 수 있으며, 陰部에서 發生하면 환자가 반드시 嘔吐를 하고, 陽部에서 發生하면 환자가 추워 떨면서 熱이 난다.

【考察】

本 條文은 口渴의 有無로써 黃疸을 預後를 論술하였다. 黃疸에 口渴이 있는 것은 濕熱이 더욱 熾盛한 것이기 때문에 治療하기 어렵고, 口渴이 없는 것은 濕熱이 減退한 것이기 때문에 治療할 수 있다.⁷⁰⁾

西醫學의으로 化膿性 膽囊炎·化膿性 膽管炎에는 高熱을 동반하며 預後가 不良한데 高熱로 인하여 口渴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治療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思料된다.

‘陰部’와 ‘陽部’에 대하여 趙以德은 陰部는 脾太陰으로, 陽部는 胃陽明으로 보았⁷¹⁾, 尤怡는 陰部는 藏府를, 陽部는 軀殼으로 보았는데 嘔吐는 脾胃의 症

66) 尤怡: 土無定位하고 寄旺於四季之末各十八日하며 黃者는 土氣也오 內傷於脾 故로 卽以土旺之數로 爲黃病之期라
 67) 沈明宗: 此는 取陽病陰和 陰病陽和之大綱也라 十八은 乃 三六이니 陰數之期也오 十日은 二五니 陽土之數也라 黃疸은 乃濕熱鬱蒸하야 陽邪九極하고 脾陰大衰 故로 治之需候一六 二六 三六하야 陰氣來復하야 制火之氣하니 以爲定期라
 68) 徐彬: 黃疸之病은 過三候而氣一變하니 五日은 爲一候오 十五日은 爲一氣니 若十五日又加三日 則爲十八日하야 一氣有餘하니 未滿四候에 愈則竟愈 故로 曰爲期라

69) 全國韓醫科大學 肝系內科學教授. 肝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2001. pp. 70, 71.
 70) 尤怡: 疸而渴 而熱方熾而濕且日增 故로 難治오 不渴則熱已減而濕亦自消 故로 可治라
 71) 趙以德: 陰部者는 脾太陰也오 陽部者는 胃陽明也라

狀이고 振寒發熱은 表證인 점으로 볼 때 陰部는 藏府를, 陽部는 軀殼으로 본 尤怡의 설명이 타당한 것으로 思料된다.

第 13條. 穀疸의 症狀과 治方

【原文】

穀疸之爲病은 寒熱不食하고 食卽頭眩心胸不安하며 久久發黃爲穀疸하니 茵陳湯主之¹⁾라
茵陳湯
茵陳蒿六兩 梔子十四枚 大黃二兩
右二味²⁾를 以水一斗로 先煮¹⁾茵陳하고 減六升하여 內²⁾二味하고 煮取三升하여 去滓³⁾하여 分溫三服이면 小便當利하여 尿如皂角汁狀色正赤하고 一宿復減³⁾하니 黃從小便去也라

【校勘】

- 1) 茵陳湯主之: 『醫統本』, 『衍義』, 『金鑑』, 『心典』, 『廣注』에는 “茵陳蒿湯主之”로 되어 있다.
- 2) 右二味: 『醫統本』, 『廣注』에는 “右三味”로, 『金鑑』, 『心典』에는 “上三味”로 되어 있는데 茵陳蒿湯이 茵陳·梔子·大黃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三’이 옳다.
- 3) 一宿復減: 『醫統本』, 『衍義』, 『金鑑』, 『心典』, 『廣注』에는 “一宿腹減”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煮: 藥물을 淸水 또는 液狀의 酢나 藥汁 등의 補助材에 넣어서 조금 끓이고 그 毒性을 弱하게 하고 藥物의 純度を 높이는 것. * 煮: 烹也, 다릴 자
- (2) 內: 入也, 들일 납
- (3) 滓: 澼也, 찌꺼기 재

【國譯】

穀疸의 症狀은 惡寒發熱이 있어 飲食을 먹지 못하고 飲食을 먹으면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不安하여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면 黃疸이 발생하여 穀疸이 되니 茵陳湯으로 主治한다.

茵陳湯

茵陳蒿六兩 梔子十四枚 大黃二兩

위의 세 가지 약재를 물 一斗로 먼저 茵陳을 끓여서 六升이 되도록 하고 梔子和 大黃 두 가지를 넣어서 三升이 되도록 끓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따뜻하게 세 번에 나누어 복용하면 小便이 잘 나오는데 小便이 皂角汁처럼 아주 붉으나 하룻밤이 지나면 小便의 붉은 색이 얼어지니 黃疸이 小便을 따라 除去된다.

【考察】

본 條文은 濕熱로 발생된 穀疸의 治療를 論술하였다. 앞의 條文에 穀疸의 症狀을 이미 설명하였으니 ‘小便不通’의 症狀은 당연히 있을 것이며, 다만 ‘寒熱’은 설명이 없는데 여기에서의 寒熱은 일반적인 表證과는 관계가 없고⁷²⁾ 濕熱이 營衛를 壅滯시켜서 발생되는 것이다. 茵陳과 梔子は 淸濕熱하고, 大黃은 積滯를 瀉下시키니 茵陳蒿湯은 脾胃의 濕熱을 大小便을 排出하는 것으로 보아도 일반적인 表症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 “小便當利 尿如皂角汁狀色正赤 一宿復減 黃從小便去也”이라 하였다.

「五臟穿鑿論」에 “肝은 大腸과 相通하니 肝病에는 마땅히 大腸을 疏通시켜야 하고, 大腸病에는 마땅히 肝經을 平靜시키는 것을 爲主로 해야 한다.(肝與大腸相通 肝病宜疏通大腸 大腸病宜平靜肝經爲主)”⁷³⁾고 하였으니 茵陳湯에 大黃을 넣은 것은 이러한 이유인 것으로 思料된다.

茵陳湯을 사용하여 郭⁷⁴⁾은 黃疸을 동반한 急性傳染性肝炎을, 李⁷⁵⁾는 黃疸을 동반하지 않는 傳染性肝炎을, 王⁷⁶⁾은 肝膿瘍을 치료한 예를 報告하였다.

第 14條. 女勞疸

【原文】

黃家は 日晡所¹⁾에 發熱¹⁾이어늘 而反惡寒하면 此爲女勞得之니 膀胱急 少腹滿 身盡黃 額上黑 足下熱²⁾

- 72) 魏荔澗: 此寒熱은 由內發外하고 與表邪無涉也라
- 73)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p. 368, 369.
- 74) 郭子光. 傷寒論湯證新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p. 149.
- 75) 李克光. 100例小兒傳染性肝炎의 臨床分析. 上海中醫雜誌. 1965. vol4. p. 8.
- 76) 王新昌: 經方治驗四則, 國醫論壇, 1987, vol3 p21

하니 因作黑疸이라 其腹脹如水狀이나 大便必黑 時澹 하니 此女勞之病이오 非水也³⁾라 腹滿者는 難治⁴⁾니 用硝礬散主之⁵⁾라

硝石礬石散方⁶⁾

硝石⁷⁾⁽²⁾ 礬石⁽³⁾ 燒⁽⁴⁾ 等分

右二味를 爲散하고 以大麥⁽⁵⁾ 粥汁으로 和⁽⁶⁾하여 復方寸匕⁸⁾⁽⁷⁾ 호래 日三服이면 病隨大小便去하니 小便正黃하고 大便正黑이 是候也라

【校勘】

- 1) 日晡所發熱: 『外臺』에는 “日晡發熱”로 되어 있다.
- 2) 膀胱急 少腹滿 身盡黃 額上黑 足下熱: 『外臺』에는 “膀胱急 小腹痛 身體盡黃 額上反黑 足下熱”로 되어 있다.
- 3) 其腹脹如水狀 大便必黑 時澹 此女勞之病 非水也: 『外臺』에는 “大便必黑 腹臙脹滿如水狀 大便黑澹者 此女勞之病 非水也”로 되어 있다.
- 4) 腹滿者難治: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腹滿不可治”로 되어 있다.
- 5) 用硝礬散主之: 『醫統本』에는 “治消石礬石散主之”로, 『衍義』에는 “消石礬石散主之”로, 『金鑑』·『心典』에는 “硝石礬石散主之”로, 『廣注』에는 “消礬散主之”로 되어 있다.
- 6) 硝石礬石散方: 『醫統本』·『衍義』·『廣注』에는 “消石礬石散方”으로 되어 있다.
- 7) 硝石: 『醫統本』·『衍義』·『廣注』에는 “消石”으로, 『心典』에는 “硝石熬黃”으로, 『外臺』에는 “消石熬黃”으로 되어 있다.
- 8) 和復方寸匕: 『醫統本』·『衍義』·『金鑑』·『心典』·『廣注』에는 “和服方寸匕”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和服方寸匕”가 옳다.

【註釋】

- (1) 日晡: 해질녘. 晡는 申時로 오후 3시에 5시 사이이다.
- (2) 硝石: 芒硝의 異名

- (3) 礬石: 白礬의 異名
- (4) 燒: 燻也, 구을 소
- (5) 大麥: 보리
- (6) 和: 調味, 섞을 화
- (7) 方寸匕: 古代에 약물의 분말을 재던 기구 명칭. 그 모양이 마치 적은 숟가락 같은데, 그 크기가 1寸 正方形이므로 이와 같이 이름하였다. 1方寸匕는 2.74ml에 해당하며, 金石 분말을 담으면 약 2g이고, 草木 분말을 담으면 약 1g이다.

【國譯】

黃疸은 해질 녘에 熱이 나는데 도리어 惡寒하면 이는 女勞로 발생된 것이니 少腹緊痛하여 少腹이 脹滿하고 온몸이 누렇게 되고 이마 위가 검게 되고 발 바닥에 熱이 나고 치료하지 않으면 黑疸이 된다. 腹脹이 水病으로 된 것과 같으나 大便이 반드시 검고 때로 묽으니 이는 女勞로 인한 病이지 水氣로 인한 病은 아니다. 腹部가 脹滿한 사람은 치료하기 어려우니 硝礬散으로 主治한다.

硝石礬石散方

硝石 礬石 燒 等分

위의 두 가지 藥材를 가루를 내어 大麥粥汁에 타서 方寸匕만큼 服用하되 하루에 세 번 복용하면 病邪가 大小便을 따라서 除去되니 小便이 매우 노랗고 大便이 아주 검게 되는 것이 그 證候이다.

【考察】

본 조문은 女勞疸을 濕熱黃疸·黑疸·水脹과의 鑑別, 女勞疸의 預後 및 治療를 논술하였다.

일반적으로 黃疸은 日晡에 發熱하는 것은 陽明熱證이기 때문에 ‘不惡寒’하는데⁷⁷⁾ 도리어 ‘惡寒’이 발생되는 것은 陽明熱證이 아닌 房勞過度로 인하여 腎陰이 不足하여 虛火가 발생하는 女勞疸이다.

女勞疸에서도 黑疸의 目青面黑·大便正黑·雖黑微黃과 매우 비슷한 身盡黃·額上黑·大便必黑 등의 症狀이 나타날 수 있지만 黑疸은 아니다. 따라서 “因作黑疸”을 陳紀藩은 비록 女勞疸이 오래되면 黑疸로 傳變될 수 있지만 “因作黑疸”을 ‘黑疸이 된다’로 해석하지 않

77) 吳謙: 黃疸日晡所發熱은 乃陽明熱證이니 當不惡寒也라

고 “黑疸과 매우 비슷하다”로 해석하여 女勞疸이 瘀血을 兼한 症狀을 설명한 것으로 보았다.⁷⁸⁾

瘀血을 兼한 것으로 본 이유는 趙以德이 “腎은 陰을 主宰하고 五藏의 根本이 되며 血이 모두 이에 속한다. 血이 비록 中土에서 化生되어 心에서 生하고 肝에 藏하나 만약 腎陰이 病들면 中土가 化生할 수 없고 心이 生할 수 없고 肝이 藏하지 못하여 營衛가 運行되지 못하여 血이 敗하게 되어 濕熱과 함께 腸胃에 結滯된다. 腎은 水에 屬하니 味는 鹹味이고 性은 寒하므로 治療하는 藥은 반드시 鹹寒한 것을 사용하여 不足한 水를 補하고 侵犯한 熱을 瀉하고 腸胃에 鬱結된 것을 蕩滌하여 목을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것이 이르게 하여야 하니 硝石을 君藥으로 사용하였다. 本草에 礬石은 骨髓에 있는 熱을 없앤다고 하였고 骨은 腎과 合하니 또한 腎熱을 治療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大麥粥汁으로 使를 삼아서 腸胃로 들어가게 하여 鬱結된 熱氣를 下泄시킨다. 大便은 陰에 屬하고 瘀血은 이로부터 나오니 黑色이고, 小便은 陽에 屬하고 熱液이 이를 따라 滑利하니 色黃하다.”⁷⁹⁾고 말한 것에 근거하였는데 瘀血의 代表的 症狀인 日輕夜重의 症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金克木의 現象으로 思料된다.

硝石礬石散을 사용하여 章⁸⁰⁾은 肝硬化로 인한 腹水를, 襄⁸¹⁾은 肝炎을, 杜⁸²⁾는 膽結石을 治療한 예를 報告하였다.

78)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533

79) 趙以德: 腎者는 陰之主也며 爲五藏之根이니 血盡屬之라 血雖化於中土하고 生之於心하고 藏之於肝이나 若腎陰病 則中土莫得而化하고 心莫得而生하고 肝莫得而藏하고 營衛莫得而行하니 其血敗矣하야 將與濕熱痰瘀於腸胃之間이라 腎屬水하니 其味鹹이오 其性寒 故로 治之之藥은 必用鹹寒하야 補其不足之水하고 瀉其所客之熱하고 蕩滌腸胃하야 推陳致新이니 用硝石爲君이라 本草에 礬石能除固熱在骨髓者라하고 骨與腎合하니 亦必能治腎熱可知也라 大麥粥汁爲之使하야 引入腸胃下泄鬱氣라 大便屬陰하고 瘀血由是以出하니 其色黑이오 小便屬陽하고 熱液從是而利하니 其色黃也라

80) 章巨膺: 硝石礬石散治療肝硬化腹水初步報告, 上海中醫藥雜誌, 1956, vol.3 p.33

81) 襄汾縣醫院: 加減硝石礬石散(丸)治療急性傳染性肝炎, 山西醫藥雜誌, 1978, vol.4 p.47

82) 杜雨茂: 金匱要略闡釋, 陝西科學技術出版社, 西安, 1987, p.445

女勞疸에 腹脹의 症狀이 있어서 水氣로 인하여 發生되는 腹脹과 類似하나 膀胱急·身盡黃·額上黑·足下熱·大便黑 등의 症狀은 腎熱의 徵候로서 脾가 濕을 運行하지 못하여 發生되는 腹脹과는 다르다.⁸³⁾

女勞疸에 腹滿을 兼하면 土가 敗壞된 것이기 때문에 腎에 있는 邪氣를 制壓하지 못하여서 治療하기 어렵다.⁸⁴⁾

第 15條. 酒疸의 症狀과 治方

【原文】

酒黃疸¹⁾에 心中懊懣하고 或熱痛하면 梔子大黃湯主之²⁾라

梔子大黃湯方

梔子十四枚³⁾ 大黃一兩⁴⁾ 枳實五枚 豉一升⁵⁾

右四味를 以水六升으로 煮取二升⁶⁾하야 分溫三服⁷⁾이라

【校勘】

- 1) 酒黃疸: 『心典』에는 “酒癰”으로, 『外臺』에는 “酒癰者”로 되어 있다.
- 2) 梔子大黃湯主之: 『外臺』에는 “梔子枳實豉大黃湯主之”로 되어 있다.
- 3) 梔子十四枚: 『外臺』에는 “梔子七枚”로 되어 있다.
- 4) 大黃一兩: 『心典』에는 “大黃二兩”으로 되어 있다.
- 5) 豉一升: 『衍義』·『外臺』에는 “香豉一升”으로 되어 있다.
- 6) 煮取二升: 『衍義』·『金鑑』에는 “煮取三升”으로, 『外臺』에는 “煮取二升 去滓 溫服七合”으로 되어 있다.
- 7) 分溫三服: 『金鑑』에는 “分溫二服”으로, 『外臺』에는 “日三服”으로 되어 있다.

【國譯】

酒黃疸에 가슴이 몹시 답답하고 괴로워 못 견디며

83) 尤怡: 膀胱急 額上黑 足下熱 大便黑은 皆腎熱之徵이니 雖少腹脹滿하야 有如水狀이나 而實爲腎熱而氣內畜하니 非脾濕而水不行也라

84) 徐彬: 又兼腹滿土敗 則腎邪愈難制 故로 曰難治라

或은 뜨거운 것같이 아프면 梔子大黃湯으로 主治한다.

梔子大黃湯方

梔子十四枚 大黃一兩 枳實五枚 豉一升

위의 네 가지 藥材를 물 六升으로 二升이 되도록 끓여서 따뜻하게 세 번에 나누어 服用한다.

【考察】

본 條文은 酒疸의 症狀과 治療處方을 論술하였다. 酒疸은 이미 앞에서 飲酒過多로 인한 濕熱로 발생되는 것으로 論술하였으며, 梔子大黃湯으로 治療하였는데 梔子和 豉는 濕熱을 위로 越出시키고, 大黃과 枳實은 下劑로서 濕熱을 아래로 排泄하니 上下로 濕熱을 나누어 消散시키는 것이다.⁸⁵⁾

梔子大黃湯을 사용하여 楊⁸⁶⁾은 重症의 濕熱黃疸을, 俞⁸⁷⁾는 傳染性肝炎을 治療한 例를 報告하였다.

第 16條. 黃疸의 治法

【原文】

諸病黃家¹⁾는 但利其小便이나 假令脈浮²⁾하면 當以汗解之니 宜桂枝加黃耆湯主之³⁾라 方見水病中⁴⁾이라

【校勘】

- 1) 諸病黃家: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師曰諸病黃家”로 되어 있다.
- 2) 假令脈浮: 『金鑑』에는 “假令脈浮者”로 되어 있다.
- 3) 宜桂枝加黃耆湯主之: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宜桂枝加黃耆湯”으로 되어 있다.
- 4) 方見水病中: 『醫統本』에는 “方見水氣病中”으로, 『金鑑』에는 “見水氣病中”으로 되어 있다.

【國譯】

모든 黃疸病에는 小便을 잘 보게하는 것이 原則이니 만약 脈이 浮脈이면 發汗으로 解表하는 것이 옳으니 桂枝加黃耆湯으로 主治한다.(處方은 水氣病脈證并治에 있다.)

85) 李炫: 梔子豉爲吐劑하여 使濕熱從上越이오 大黃枳實爲下藥하여 使濕熱從下泄이니 此上下分消法也라
 86) 楊百葦: 金匱集解, 湖北科學技術出版社, 武漢, 1984, 0.15
 87) 俞尉南: 三例黃疸의 療效介紹, 新中醫, 1988, vol.4 p.15

【考察】

본 條文은 黃疸의 治法을 論술하였다.

앞의 條文에 “黃家從濕得之”라 하였으니 利小便으로 濕熱을 除去하는 것은 黃疸治療의 大法이 된다. 다만 浮脈이 나타나는 경우는 病邪가 表部에 있는 것이니 發汗시키는 것이 마땅하므로 桂枝加黃耆湯을 사용한다.⁸⁸⁾ 黃疸에 桂枝湯을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風을 治療하는 것은 아니고 外感表邪가 있어 안에 濕邪가 뒤섞인 것을 治療하는 것이다. 黃芪를 加味한 것은 黃疸이 胃虛로부터 由來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반드시 補中益氣하여 正氣가 邪氣를 이길 수 있도록 輔助하여야 藥力이 運行될 수 있다.⁸⁹⁾

桂枝加黃耆湯은 桂枝三兩 芍藥三兩 甘草二兩 生薑三兩 大棗十二枚 黃耆二兩으로 구성되며, 여섯 가지 藥材를 물 八升到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一升을 따뜻하게 服用한 잠시 뒤에 湯을 一升남것 마셔서 藥力을 돕고 湯을 조금 내는데 만약 湯이 나지 않으면 다시 服用한다.

第 17條. 豬膏髮煎證

【原文】

諸黃에 豬膏髮煎主之라

豬膏髮煎方

豬膏半斤¹⁾ 亂髮¹⁾如鷄子大三枚²⁾

右二味를 合膏²⁾中³⁾하고 煎之하여 髮消³⁾藥成하여 分再服⁴⁾이면 病從小便出⁵⁾이라

【校勘】

- 1) 豬膏半斤: 『外臺』에는 “豬膏八兩”으로 되어 있다.
- 2) 亂髮如鷄子大三枚: 『外臺』에는 “亂髮大如鷄子一枚”로 되어 있다.

88) 吳謙: 假令脈浮 則爲在表하여 當而汗解之니 宜桂枝加黃耆湯이라
 89) 魏荔澗: 而桂枝湯爲主하여 用於黃家是 非專治風也오 有表邪外感하여 內濕濕邪者도 皆可主之也라 加黃芪者는 知疸病由於胃虛니 必補中益氣라야 斯足而正勝於邪 而 藥力方可行也라

- 3) 合膏中: 『醫統本』에는 “和膏中”으로, 『外臺』에는 “內髮膏中”으로 되어 있다.
- 4) 髮消藥成 分再服: 『外臺』에는 “髮消盡研 絞去膏細滓 分二服”으로 되어 있다.
- 5) 病從小便出: 『廣注』에는 “病從小便去”로, 『外臺』에는 “病從小便去也”로 되어 있다.

【註釋】

- (1) 亂髮: 血餘炭이라고도 하며 저질로 빠진 사람의 머리카락이다.
- (2) 膏: 豬脂, 돼지기름 고
- (3) 消: 釋也, 풀릴 소

【國譯】

모든 黃疸에는 豬膏髮煎으로 主治한다.

豬膏髮煎方

豬膏半斤 亂髮如鷄子大三枚

위의 두 가지 藥材를 돼지기름에 넣고 끓여서 亂髮이 없어져서 藥이 되면 두 번에 나누어 服用하니 病邪가 小便을 따라 排出된다.

【考察】

豬膏髮煎은 黃疸 가운데 穀氣가 實한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며, 腎은 胃의 關門이 되니 胃에 穀氣가 實하면 胃氣가 막혀 腎燥하게 되므로 豬膏로써 腎이 燥한 것을 濡潤하고 髮灰로써 陰血을 이롭게 하니 이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여 치료한다⁹⁰⁾. 豬膏는 利腸胃 通小便 除五疸水腫⁹¹⁾하고, 亂髮은 消瘀血하고 補陰 하므로⁹²⁾ 原文의 ‘諸黃’은 비록 一切의 黃疸를 뜻하지만 반드시 모든 黃疸를 포함하지 않으며⁹³⁾ ‘陰黃’을 뜻한다⁹⁴⁾.

第 18條. 茵陳五苓散證

【原文】

90) 徐彬: 此는 爲黃疸之穀氣實者設也라 腎爲胃關하니 胃家 穀氣實 則氣閉而腎燥 故로 以豬膏潤腎燥하고 髮灰利陰 血하야 合而服之 則胃燥和而鬱解라

91)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4, p1112

92)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4, p1188

93) 吳謙: 諸黃은 謂一切黃也니 皆主豬膏髮煎이나 恐未必盡 然하니 醫者審之라 此必有脫簡也라

94) 沈明宗: 此는 黃疸血分通治之方也라 寒濕入於血分하야 久而生熱하면 鬱蒸氣血不利하야 證顯津枯血燥하야 皮膚 黃而暗晦하니 卽爲陰黃이라

黃疸病에 茵陳五苓散主之라 一本에 云 茵陳湯¹⁾及 五苓散主之라

茵陳五苓散方

茵陳十分²⁾ 五苓散五分 方見痰飲中이라

右二物³⁾을 和하야 先食飲方寸匕⁴⁾호대 日三服이라

【校勘】

- 1) 茵陳湯: 『醫統本』에는 “茵陳湯”으로 되어 있다.
- 2) 茵陳十分: 『醫統本』·『金鑑』·『廣注』·『外臺』에는 “茵陳蒿末十分”으로, 『心典』에는 “茵陳末十分”으로 되어 있다.
- 3) 右二物: 『醫統本』·『外臺』에는 “右二味”로 되어 있다.
- 4) 先食飲方寸匕: 『廣注』에는 “先食飲服方寸匕”로, 『外臺』에는 “先食白飲和方寸匕”로 되어 있다.

【國譯】

黃疸病에 茵陳五苓散으로 主治한다.(어느 本에는 茵陳湯과 五苓散을 함께 사용하여 主治한다고 하였다.)

茵陳五苓散方

茵陳十分 五苓散五分 處方은 痰飲咳嗽病脈證并治에 있다.

위의 두 가지 藥材를 섞어서 먼저 方寸匕만큼 服用하되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考察】

茵陳五苓散은 茯苓·豬苓·澤瀉·白朮·桂枝로 구성된 五苓散에 茵陳을 加味한 것으로 利小便하는 五苓散에 鬱結된 熱을 分散하는 茵陳을 加味하여 濕熱로 發生되는 黃疸에 사용하였다.

第 19條. 大黃硝石湯證

【原文】

黃疸¹⁾에 腹滿하고 小便不利而赤하며 自汗出²⁾하면 此爲表和裏實³⁾이니 當下之⁴⁾로 宜大黃硝石湯主之⁵⁾라

大黃硝石湯方⁶⁾

大黃四兩 黃芩四兩 硝石四兩 梔子十五枚⁷⁾

右四味를 以水六升으로 煮取三升⁸⁾하야 去滓하고 內硝更煮하야 取一升하야 頓服⁹⁾이라

【校勘】

- 1) 黃疸: 『外臺』에는 “黃家”로 되어 있다.
- 2) 自汗出: 『外臺』에는 “身汗出者”로 되어 있다.
- 3) 此爲表和裏實: 『外臺』에는 “表和裏實也”로 되어 있다.
- 4) 當下之: 『外臺』에는 “宜下之”로 되어 있다.
- 5) 宜大黃硝石湯主之: 『醫統本』에는 “宜大黃消石湯主之”로, 『脈經』卷八平黃疸寒熱癰脈證第九에는 “用大黃黃柏梔子芒硝湯”으로, 『金鑑』·『心典』에는 “宜大黃硝石湯”으로, 『外臺』에는 “大黃黃蘗皮梔子消石湯”으로 되어 있다.
- 6) 大黃硝石湯方: 『醫統本』에는 “大黃消石湯方”으로 되어 있다.
- 7) 大黃四兩 黃蘗四兩 硝石四兩: 『醫統本』·『衍義』·『廣注』에는 “大黃 黃蘗 消石各四兩”으로, 『金鑑』·『心典』에는 “大黃 黃蘗 硝石各四兩”으로, 『外臺』에는 “大黃四分 黃蘗四兩 梔子十五枚 消石四兩”으로 되어 있다.
- 8) 煮取三升: 『醫統本』·『衍義』·『金鑑』·『心典』에는 “煮取二升”으로, 『外臺』에는 “煮取三物得二升半”으로 되어 있다.
- 9) 內硝更煮取一升 頓服: 『醫統本』에는 “內消更煮取一升 頓服”으로, 『外臺』에는 “內消石更煎取一升 先食頓服盡”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更: 再也, 다시 갠

【國譯】

黃疸에 腹部가 脹滿하고 小便이 잘 나오지 않고 色이 붉으며 自汗을 흘리면 이는 表部는 正常이나 裏部는 實한 것이니 瀉下시켜야 하니 大黃硝石湯으로 主治해야 한다.

大黃硝石湯方

大黃四兩 黃蘗四兩 硝石四兩 梔子十五枚

위의 네 가지 藥材를 물 六升으로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硝石을 넣고 一升이 되도록

다시 달여서 한 번에 服用한다.

【考察】

본 條文은 裏實證에 속하는 濕熱黃疸을 논술하였다. 腹滿, 小便不利하거나 小便赤의 症狀은 裏熱이 있는 것이며⁹⁵⁾ 自汗出은 表證이 아니라 傷寒 陽明病에 自汗出의 原理와 같으니 內熱이 極盛하여 나오는 것이므로 “表和裏實”이라 하였다. 裏實熱證에 속하므로 瀉下시켜야 하니 大黃硝石湯을 사용하였다. 本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腹部와 脇下가 脹滿하고 腹診할 때 拒按하고 大小便不利하고 脈은 滑數有力 하여야 쓸 수 있다. 大黃과 硝石은 氣血의 實熱을 제거하고⁹⁶⁾, 梔子는 上焦의 濕熱을 없애고, 黃柏은 下焦의 濕熱을 除去한다.⁹⁷⁾

第 20條. 小半夏湯證

【原文】

黃疸病¹⁾에 小便色不變하고 欲自利하며 腹滿而喘²⁾하면 不可除熱³⁾이니 熱除하면 必噦이오 噦者는 小半夏湯主之라 方見消渴中⁴⁾이라

【校勘】

- 1) 黃疸病: 『外臺』에는 “黃疸”로 되어 있다.
- 2) 腹滿而喘: 『外臺』에는 “腹滿而喘者”로 되어 있다.
- 3) 不可除熱: 『外臺』에는 “不可除其熱”로 되어 있다.
- 4) 方見消渴中: 『醫統本』에는 “方見痰飲中”으로, 『金鑑』에는 “見痰飲中”으로 되어 있어 있는데 이것이 맞다.

【註釋】

(1) 噦: 逆氣, 딸꾹질할 일

【國譯】

黃疸病에 小便色이 變하지 않고 泄瀉를 하려 하고 腹部가 脹滿하면서 숨이 차면 熱을 없애서는 안 되니

95) 徐彬: 腹滿小便不利且赤하면 裏熱可知라

96) 徐彬: 大黃硝石은 解氣血中之實熱이라

97) 李炆: 用梔子하야 清上焦濕熱하고 黃柏은 清下焦濕熱이라

熱이 없어진다면 반드시 딸꾹질을 할 것이니 딸꾹질을 하면 小半夏湯으로 主治한다. 處方은 消渴小便利淋病證治에 있다.

【考察】

본 條文은 黃疸에 ‘腹滿而喘’의 症狀만 보고서 實熱證으로 誤認하여 下法으로 誤治하므로써 딸꾹질이 발생하는 證治를 논술하였다.

裏實證의 경우에는 小便色이 반드시 赤色인데 小便色에 變化가 없으며 더욱이 泄瀉를 하려는 것은 虛寒으로 인한 것이다.⁹⁸⁾ 胃中이 虛冷하기 때문에 自利와 腹滿의 증상이 있고 이에 따라 喘證이 있다. 이는 『傷寒論』에 “陽明病에 飲食을 먹지 못하는데 熱을 攻下하면 반드시 딸꾹질이 나니 그런 까닭은 胃中이 虛冷하기 때문이다. 患者가 본래 虛한데 熱을 攻下하면 반드시 딸꾹질이 난다.(陽明病 不能食 攻其熱必噦 所以然者 胃中虛冷故也 以其人本虛 攻其熱必噦)”고 한 것에 미루어 보면 타당하며, 西醫學에서도 진한 소변 색깔은 접합형 빌리루빈의 일부가 腎臟으로 배설되기 때문인 것으로 소변 색깔이 홍차나 콜라 색과 같은 빌리루빈노증(bilirubinuria)은 혈청 접합형 빌리루빈의 증가를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肝疾患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⁹⁹⁾, 小便色이 변하지 않는 것은 간질환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결국은 다른 장기, 즉 脾胃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裏實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딸꾹질이 나는 이유는 胃虛로 인하여 氣逆하게 되고 氣逆하면 痰이 壅滯되기 때문이다.¹⁰⁰⁾

原文에 小半夏湯이 「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並治」에 나온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痰飲咳嗽病脈證並治」에 나와 있으며 處方은 半夏一兩 生薑半斤으로 構成되어 있고 물 七升으로 一升半이 되도록 달여서 두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服用한다. 方中의 半夏는 實熱을 없애기 위하여 苦寒한 藥材를 써서 脾胃가 손상되어 濕을 運化하지 못하므로 痰飲이 된 것을 치료

하기 위함이고, 生薑은 溫中降逆한다.

第 21條. 黃疸에 腹痛과 嘔吐를 兼하였을 때의 治方

【原文】

諸黃¹⁾에 腹痛而嘔者²⁾는 宜柴胡湯이라 必小柴胡湯³⁾이오 方見嘔吐中이라

【校勘】

- 1) 諸黃: 『醫統本』에는 “諸勞”로 되어 있다.
- 2) 腹痛而嘔者: 『金鑑』에는 “腹滿而嘔者”로 되어 있다.
- 3) 必小柴胡湯: 『心典』에는 “卽小柴胡湯”으로, 『廣注』에는 “此大柴胡湯也”로 되어 있다.

【國譯】

모든 黃疸에 배가 아프면서 嘔吐를 하는 사람은 柴胡湯을 써야 한다.(반드시 小柴胡湯이니 處方은 嘔吐噦下利病脈證并治에 있다.)

【考察】

黃疸에 腹痛과 嘔吐의 症狀이 있는 것은 病邪가 少陽經에 있는 것이나 腹痛과 嘔吐와 같은 脾胃의 症狀이 나타나는 것은 肝에 있는 邪氣가 脾胃를 侵犯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小柴胡湯으로 少陽經에 있는 邪氣를 除去하면 腹痛과 嘔吐는 없어진다. 그러나 또한 小柴胡湯이 모든 黃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¹⁰¹⁾

程林은 “黃疸에 腹痛과 嘔吐가 있는 것은 實邪가 있는 것이니 大柴胡湯을 써야 하지 만약 小柴胡湯을 쓴다면 嘔吐는 없어지지만 腹痛은 낫지 않는다.”¹⁰²⁾고 하였고, 李炆¹⁰³⁾ 또한 이와 같은 見解를 갖고 있다.

101) 尤怡: 腹痛而嘔는 病在少陽이나 脾胃病者는 木邪易張也라 故로 以小柴胡湯으로 散邪氣하면 止痛嘔나 亦非小柴胡湯能治諸黃也라

102) 程林: 今黃家腹痛而嘔는 應內有實邪하니 當是大柴胡湯以下之오 若小柴胡則可止嘔나 未可療腹痛也라

103) 李炆: 腹滿宜下나 兼嘔 則邪氣未盡入裏하야 尙在半表半裏之間하니 又未可峻攻하니 大柴胡湯以大黃芍藥枳實以攻裏하고 柴胡半夏黃芩薑棗以和中解表하니 此表裏雙解也라

98) 徐彬: 內實엔 小便必赤이나 今色不變하고 加自利는 虛寒也라

99) E. Braunwald 외 著. 대한내과학회 譯. Harrison's principles Internal Medicine. 도서출판MIP. 서울. 2003. p. 260.

100) 徐彬: 噦由胃虛而氣逆 逆則痰壅이라

『傷寒論』에 “傷寒五六日 中風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脇下痞硬 或心下悸小便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咳者 小柴胡湯主之”라고 한 것과 “傷寒發熱 汗出不解 心下痞硬 嘔吐而下利者 大柴胡湯主之”라고 한 것을 보면 小柴胡湯과 大柴胡湯이 모두 腹痛嘔吐에 사용할 수 있어서 모두 一理가 있다. 그러나 大柴胡湯은 少陽經病이 陽明裏實證을 兼하여 大便秘結, 潮熱의 症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나 原文에 裏實證을 兼하였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尤怡 등의 說明이 타당한 것으로 思料된다.

小柴胡湯은 柴胡半斤·半夏半升·黃芩三兩·人參三兩·甘草三兩·生薑三兩·大棗十二枚로 구성되고, 위의 일곱 가지 藥材를 물 一斗二升으로 六升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다시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一升씩 따뜻하게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柴胡와 黃芩은 淸熱하고, 半夏와 生薑은 嘔吐를 멈추게 하고, 人參과 甘草와 大棗는 中焦를 和緩하게 하고 補虛한다.¹⁰⁴⁾

第 22條. 小建中湯證

【原文】

男子黃¹⁾에 小便自利하면 當與⁽¹⁾虛勞小建中湯²⁾이라 方見虛勞中이라

【校勘】

- 1) 男子黃: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又男子黃”으로 되어 있다.
- 2) 當與虛勞小建中湯: 『脈經·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는 “當與小建中湯”으로 되어 있어 이를 따른다.

【註釋】

(1) 與: 施予, 줄 여

【國譯】

男子的 黃疸에 小便이 自利하면 마땅히 虛勞門에 있는 小建中湯을 投與해야 한다. 處方은 血痺虛勞病

104) 李炆: 用柴胡黃芩하야 以淸熱하고 半夏生薑하야 以散逆止嘔하고 人參甘草大棗하야 以緩中補虛也

脈證并治에 있다.

【考察】

『傷寒論』에 “若小便自利者 不能發黃”이라 하였는데 이는 黃疸의 原因인 濕熱이 小便을 따라 排出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黃疸에는 반드시 小便不利 또는 小便不通의 症狀가 隨伴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原文에 ‘小便自利’의 症狀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본 條文의 黃疸은 濕熱로 발생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의 女勞疸의 경우에도 ‘小便自利’의 症狀가 있으나 이는 房勞過度로 인하여 腎陰이 不足으로 인한 것인 반면에, 본 條文의 ‘小便自利’는 小建中湯을 사용하는 점으로 보아서 原因이 脾胃에 있다. 그 이유는 小建中湯의 ‘建中’은 ‘建脾胃’의 뜻이며¹⁰⁵⁾ 小建中湯은 溫中建脾하고 調和血氣를 하는 것이 目的이기 때문이다. 『傷寒論』에 “傷寒二三日 心中悸而煩者 小建中湯主之”라 하였는데 心悸는 氣虛로, 煩燥는 血虛로 인한 것이고¹⁰⁶⁾, 脾는 中央土로서 氣血을 化生하는 根本이기 때문에 小建中湯을 사용하였다.

小建中湯은 桂枝三兩(去皮) 甘草三兩(炙) 大棗十二枚 芍藥六兩 生薑二兩 饅飴一升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의 藥材를 물 七升으로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饅飴를 넣고 다시 은근한 불에 올려서 모두 녹인 다음 一升 씩 따뜻하게 하루에 세 번 복용한다.

方中の 桂枝는 陽氣를 運行하고, 芍藥은 陰血을 培養하고, 甘草·大棗·饅飴는 모두 甘味로서 脾로 들어가 脾氣를 鼓舞시키며 胃가 津液을 運行하도록 도와 주고, 生薑은 桂枝를 도와 陽氣를 運行시키며 大棗와 함께 사용하면 脾의 津液을 운행하여 營衛를 調和시킨다.¹⁰⁷⁾

第 23條. 附方

【原文】

105) 陳文治: 建中은 建脾胃也라

106) 成戊己: 心悸者는 氣虛也오 煩者는 血虛也라

107) 李炆: 桂枝行陽氣하고 芍藥養陰血하고 甘草大棗饅飴俱甘味入脾하야 歸其所喜하야 以鼓舞脾氣하며 勝騰灌溉而爲胃行其津液焉이라 又生薑佐桂枝以行陽氣而辛以潤之하고 且與大棗合用하면 以行脾之津液而和營衛也라

附方

瓜蒂湯은 治諸黃이라 方見喝病中¹⁾이라

千金麻黃醇酒⁽¹⁾湯은 治諸黃⁽²⁾이라

麻黃三兩⁽³⁾

右一味를 以美⁽²⁾清酒⁽³⁾五升으로 煮取二升半하야 頓服盡호대 冬月엔 用酒하고 春月엔 用水煮之⁽⁴⁾라

【校勘】

- 1) 方見喝病中: 『醫統本』에는 없다.
- 2) 治諸黃: 『醫統本』에는 “治黃疸”로 되어 있다.
- 3) 麻黃三兩: 『衍義』에는 “麻黃一把 去節 綿裹 美酒五升”으로, 『外臺』에는 “麻黃一大把去節”로 되어 있다.
- 4) 右一味 以美清酒五升 煮取二升半 頓服盡 冬月用酒 春月用水煮之: 『衍義』에는 “上二味 煮取半升 頓服 取小汗 春月用水煮”로 되어 있다.

【註釋】

- (1) 醇酒: 탄 것을 섞지 아니한 진국술. 無灰酒라고도 한다.
- (2) 美: 好也, 좋을 호
- (3) 清酒: 맑은 술

【國譯】

瓜蒂湯은 모든 黃疸을 치료한다. 處方은 治濕喝病脈證治에 있다.

『千金方』의 麻黃醇酒湯은 모든 黃疸을 치료한다.

麻黃三兩을 좋은 清酒五升으로 二升半이 되도록 달여서 한번에 모두 服用한다. 겨울에는 술로, 봄에는 물로 달인다.

【考察】

瓜蒂湯은 「治濕喝病脈證治第二」에 ‘一物瓜蒂湯’으로 나오며, 여름철에 冷水를 자주 마시거나 冷水로 자주 沐浴하므로써 皮膚에 水濕이 머물러서 身熱이 있고 아프면서 무겁고 脈이 微弱한 太陽中喝에 濕을 兼한 경우에 사용한다. 瓜蒂는 性味가 苦寒하여 吐下할 수 있어서 身面과 四肢의 水氣를 除去하므로 濕熱로 인한 黃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服用方法은 瓜蒂二十個를 잘게 부수어 물 一升으로 五습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한번에 복용한다.

麻黃醇酒湯은 麻黃三兩을 술에 달인 것으로 濕熱로 발생하는 黃疸을 發汗시켜서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麻黃은 輕清하여 表部로 作用하는 氣分의 藥으로서 無汗表實證을 主治하고, 술은 麻黃의 發汗作用을 도우니 汗出하면 營衛가 疏通되어 안에 鬱結된 邪氣가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되므로¹⁰⁸⁾ 濕熱黃疸에 사용한 것으로 思料된다.

濕熱黃疸의 基本治法은 ‘利小便’인데 麻黃醇酒湯은 ‘發汗’시켜서 치료하는 것인데 發汗의 方法으로 黃疸을 치료한 예는 앞의 “假令脈浮者 當以汗解之 宜桂枝加黃芪湯主之”의 경우가 있다. 다만 桂枝加黃芪湯은 表虛證에 속하고, 麻黃醇酒湯은 表實證에 속하는 차이가 있다.

겨울에는 술로, 봄에는 물로 달이는 것은 겨울은 춥고 閉藏하기 때문에 술로써 發汗을 增大시키기 위함이고, 봄은 따뜻하고 發陳하기 때문에 술을 쓰지 않아도 發汗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思料된다.

IV. 總括 및 結語

『金匱要略黃疸病脈證并治第十五』는 黃疸의 分類·症狀·治法·治方·預後를 論述하였다. 全篇의 내용은 크게 發黃과 黃疸病 두 가지로 歸納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 類型의 病證은 病因·病機·症狀·預後와 治療에 있어 모두 다르다. 張仲景은 본문 가운데 發黃證에 ‘黃’字를 붙였고, 黃疸病에 ‘疸’字를 붙여 이 둘을 區別하였다. 原文에 나타난 ‘諸黃’, ‘黃家’, ‘男子黃’ 등과 같은 것이 ‘發黃證’으로서 原因이 濕熱과는 큰 關係가 없으며, 穀疸·酒疸·女勞疸·黑疸과 같은 것이 ‘黃疸病’으로서 面黃·目黃·身黃·小便黃이 주된 症狀이 되는 發黃病證이다.¹⁰⁹⁾

後代의 『諸病源候論』에는 二十八候로, 『聖濟總錄』

108) 陳修園: 麻黃은 輕清走表하야 乃氣分之藥이니 主無汗表實證이라 黃疸病은 不離濕熱之邪하니 用麻黃醇酒湯者는 以黃在肌表營衛之間하니 非麻黃이면 不能走肌表하고 非美酒면 不能痛營衛 故로 用酒煮하야 以助麻黃發汗하고 汗出則營衛通而內蘊之邪悉從外解耳라

10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3, p484

에는 九疸三十六黃으로 細分化하였으나 매우 煩雜하여 辨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金匱要略』의 分類가 비록 簡單하기는 하지만 또한 黃疸病의 여러 가지 類型의 病理의 特徵을 충분히 反映하지 못하였고, 元代에 이르러 羅天益의 『衛生寶鑑』에 陰黃과 陽黃 두 가지로 分類하여 煩雜함을 버리고 簡單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陽黃을 濕盛熱盛濕熱兩盛 등으로 분류하여 지금까지 臨床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¹¹⁰⁾ 『東醫寶鑑』에는 黃疸를 黃疸, 酒疸, 穀疸, 女勞疸, 黃汗으로 分類하였는데 後代의 대부분의 醫書는 이와 같은 分類方式을 취하고 있다.

黃疸의 病因과 病機는 風과 濕의 外邪가 침입하여 脾胃와 肝에 영향을 주어 濕熱이 발생되는 것으로 주로 논하였으며 또한 酒疸의 過度한 飲酒, 穀疸은 飲食傷, 女勞疸은 房勞, 男子黃은 虛勞로 發生됨을 논술하였다.

黃疸의 治法과 治方은 汗吐下和溫清補消의 八法을 病證에 따라 選擇하여 사용하였다. 본 편에서는 黃疸를 濕熱로 주로 논하고 있어 清熱利濕을 治法의 大綱으로 삼았는데 濕과 熱이 모두 심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茵陳蒿湯을, 濕보다는 熱이 더 큰 原因일 때에는 大黃硝石湯을, 熱보다 濕이 큰 原因일 때에는 茵陳五苓散을 사용하였다. 女勞疸의 경우에 원문에 硝石礬石散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腹脹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益腎祛瘀의 治法으로 金匱腎氣丸이나 六味地黃丸을 사용하여야 한다. 酒疸에 있어서 浮脈일 경우에는 吐法을, 沈弦脈일 경우에는 下法을 사용하였고, 小便不利의 症狀이 없이 浮脈이 나타나는 表虛證경우에는 桂枝加黃耆湯으로 發汗시켰으며, 腹滿과 小便不利 또는 小便赤의 症狀과 같이 裏熱이 있는 경우에는 大黃硝石湯으로 下法을 사용하였다.

黃疸에 기타 다른 症狀을 兼하는 경우에 있어서 黃疸를 瀉下시켜서 誤治하여 胃氣가 上逆하여 딸꾹질이 발생된 경우에는 小半夏湯을, 邪氣가 少陽經에 있어서 腹痛과 嘔吐가 있는 경우에는 小柴胡湯을, 虛勞로 인한 경우에는 小建中湯을 사용하였다.

黃疸의 預後에 있어 ‘小便不利’의 症狀가 있어야 黃疸가 발생되고 ‘小便不利’의 症狀가 없으면 濕熱이 없기 때문에 黃疸가 발생되지 않으며, 또한 渴症이 있으면 治療하기 어렵고 渴症이 없으면 治療하기 쉬우며, 腹部脹滿의 症狀가 있으면 또한 難治에 속한다.

黃疸를 앓는 期間에 있어서도 十八日을 時限으로 삼았는데 黃疸의 症狀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十日을 前後로 점차 好轉되나 도리어 惡化되는 경우는 대부분 預後가 不良하므로 실제 임상에 意義가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參考文獻

<단행본>

1. 曹家達. 金匱要略發微, 志遠書局, 臺北, 2003.
2. 張三植. 大漢韓辭典. 서울. 集文堂. 2001.
3.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增訂 韓醫學大辭典. 정담. 서울. 2001.
4.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5.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0.
6. 張玉清 編著.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7. 尤怡.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8. 吳大眞 總編. 中醫辭海.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6. 孫思邈 著·李景榮 등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9. 魏荔澗.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10. 趙以德·周楊俊. 中國醫學大成·傷寒金匱分冊 金匱玉函經二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11.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12. 王燾.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13. 李杲.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

110) 張玉清 編著: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p294

- 京, 1996.
14. 朱櫛 撰. 普濟方, 大星文化社, 서울, 1995.
 15. 趙佶.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16.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 力行書局有限公司, 臺北, 1994.
 17.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4.
 18. 王永.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19. 楊思澍, 張樹生, 傅景華. 中醫臨床大全,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1.
 20. 金赫濟, 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集文堂. 서울. 1991.
 21. 陳念祖. 金匱要略淺註, 綜合出版社, 台南, 1990
 22.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2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판집 동의학사전. 까치. 서울. 1990.
 2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25.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26.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 香港. 1987.
 27.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87.
 28.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5.
 29.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30.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84.
 31. 巢元方 著·南京中醫學院編. 諸病源候論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32.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
 33.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34. 蔡仁植·權賢德·邊元九. 漢方醫學用語大辭典. 癸丑文化社. 서울. 1983.
 35.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36. 王叔和. 影宋版 脈經, 東洋醫學研究院, 大板, 1981.
 37. 王懷隱 等. 太平聖惠方, 翰成社, 서울, 1978.
 38. 張仲景 著.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金匱要略方論. 臺北. 裕昌德書局. 1960.
 39. 中醫研究院, 廣東中醫學院. 中醫名詞述語辭典. 香港. 知識出版社. 年度未詳.